

# 형태의 음·양사상에 관한 분석 연구

- 三角形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Yin and Yang in the Form and Shape

- Especially on the Form of Triangle -

박 규 현

-----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 목차

1. 서론
  - 가. 발견과 이해
  - 나. 삼각형(Triangle)
2. 삼각형의 음양적용
  - 가. 시각문화에서의 음양적용
  - 나. 언어문화에서의 음양적용
  - 다. 청각, 후각, 기타 문화에서의 음양적용
3. 음양의 일치와 통합
4. 결론

## 참고문헌

---

## 논문요약

동양전래의 음양사상(陰陽思想)은 예술의 모든 장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디자인과 조형예술의 영역에서 본 음양사상(陰陽思想)은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고있으며 이의 발전적 연구와 응용은 디자인과 조형예술활동의 내용과 질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세계는 자기만의 독특한 사상이나 철학, 혹은 남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새로운 관심을 끌지 못하면 지금 너무 일반화되어있고 상식화되어있는 문화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문화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 변두리에 서서 선진국 문화를 흉내내거나 그것을 추종만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독자적, 창조적 문화인자(文化因子)를 찾아내어 이것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개발할 때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은 살아난다. 이런 의미에서 동양적 사고에 의존한 조형의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조형예술분야에서의 음양사상의 연구는 단순한 조형예술분야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과 철학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Abstract

In the every genre of arts we can find the oriental Yin-Yang idea which has been descended from olden time in the Orient. It arouses our big interest especially in the domain of design and plastic arts as well as in the every field of human culture. and its study and application will enrich the qualities of design and plastic arts. I think it is with the Yin-Yang idea that we have to chase to our own cultural activities to make difference from the others. Without it, we cannot advance any more the traditional heritage into better and higher state of level than the West, and our philosophy and spiritual activities be stagnant in the same cultural categories as oter countris have in common. The countries which have no distinguishing feature of their own are very easy to place themselves in the border of world culture, not in center of it only to give an immitatin of others. I would like to put great emphasis on Yin-Yang idea in the field of design and plastic arts because it will give newness and novelty to all the peopl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oriental Yin-Yang idea.

---

## Keywords

Yin, Yang, Triangle.

# 1. 서론

## 가. 발견과 이해

한국 전래의 민중미술이나 토속신앙에는 일찍부터 음양사상이 존재했고 그로 인한 다산의 번식과 풍요, 그리고 평화와 질서를 찾으려 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은 다산의 능력을 모든 동물에게 주었고 인간은 이를 일찍부터 음양사상이란 양극이치로 발전시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었다. 모든 예술의 장르에서 음양사상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특히 조형예술분야에 있어서 음양사상의 발견은 단순히 이것이 조형예술분야에만 관여하는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 인간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 철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형의 음양에 관하여 하나의 현상들만 발견했거나 논하였지 이것들을 종합하여 상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조형예술에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히 삼각형(三角形)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음양의 제현상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새로운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서 조형예술 본연의 연구목적에 기여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기초조형가운데 특히 삼각형을 음·양의 기초조형으로 삼은 것이다. 삼각형에서의 음·양의 발견과 상징적 의미, 그리고 그 특성들을 관찰하고 이를 디자인과 조형예술활동에 다시 투영함으로써 앞으로의 디자인의 세계화전략에 우리의 전통적 조형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삼각형은 예술과 문화, 그리고 인류창조와 번영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기초조형에는 삼각형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다. 그런데도 왜 삼각형이 음·양사상에서 본고의 대상에 올라 강조되어야 할까? 그것은 삼각형이야 말로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음·양의 이치를 발견하는데 단서를 주며 세상만물의 형성과 인류의 생성, 그리고 우주의 질서와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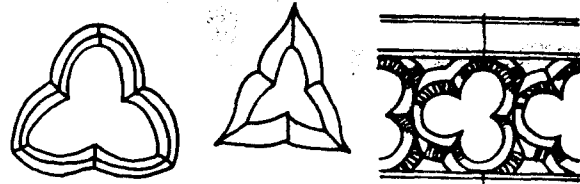
## 나. 삼각형(Triangle)

도형에서 “우주의 시작과 끝이 맞물리며 윤회하는 것이 원(圓)”<sup>註1)</sup>이면 삼각형(三角形)은 주로 우주의 생성(生成)과 발전(發展)을 의미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삼각형은 다각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으로 기하학적 변화의 성질이 매우 충분한 도형으로 모든 우주 만물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예시하는데 으뜸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으뜸이란 바로 시초를 의미하며 시초는 곧 생성의 모태로서 이 안에 모든 우주의 발전과 변화의 법칙이 연역되어진다. 걸프전의 총아로 불리우는 스탬스 폭격기는 왜 삼각형이었을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사각형이나 오각형, 기타 n각형이었다면 폭격기로서의 기능을 윤택하게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형태는 기능을 제시한다.”는 Frank Lloyd Wright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게 된다. 삼각형의 형태가 곧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폭격기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즉 삼각형을 통하여 전투의 생동감<生成>과 승리<發展>를 가져올 수 있었다.

다음 그림 1은 세 개의 작은 것들을 도형화한 것으로 생성의 의미를 담고있다.

◁ 그림 1 ▷



있는 푸른 녹색으로 그 자체가 이미 생성을 의미하지만 도형으로 나타낼 때는 다른 어떤 도형의 양식보다도 삼각형을 취한다. 그래서 일찍부터 위의 그림에서 볼수 있는 세잎장식이나 장상엽(掌狀葉)의 세꽃잎무늬 등이 도형의 장식효과로서 애용되어 왔었다. 그러한 이유는 원이나 사각형, 기타 n각형은 있을 도형으로 상징하는데는 부적절한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 그리고 생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는 도형으로서의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이 삼각형을 다른 어떤 도형보다도 생성과 발전을 의미하는데 최고의 도형으로 생각했었다. 하늘에서 삼각형인 스텔스기가 성장,발전의 이미지에 걸맞는 생동의 표본이라면 땅에서는 연안의 모래가 실어날라 만든 삼각주의 섬(Delta)이 생성의 표본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러한 자연과 물건의 창조를 가능하게 했던 창조주의 형상도 삼각형의 모습으로 자리잡는다-추후설명-그렇다면 왜 삼각형을 생성, 즉 새로운 창조에 대한 표본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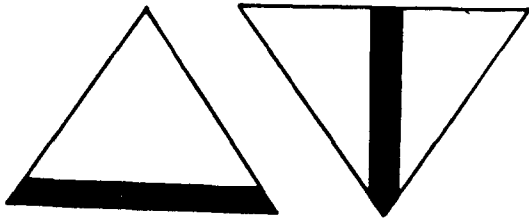
서양식 사고의 삼각형은 바로 선 정삼각형과 거꾸로 선 역삼각형을 구분하지 않고서 다만 “중성의(Neutral), 계승되는(Successive)”<sup>註2)</sup>이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한다. 중요한 것은 서양에서 삼각형의 모양을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구분하기 이전의 초기단계에서 그것의 상징적 의미를 중성(Neutral)으로 여기고 있음을 발견한 대목이다. 이것은 본문에서 펼치게 될 “바로 선 정삼각형이 여성<陰>에 해당된다면 거꾸로 선 역삼각형은 남성<陽>에 해당된다”는 필자의 논지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즉 서양인들은 삼각형을 그저 중성으로만 생각했지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동양식 음양사상(陰陽思想)에서 처럼 삼각형을 바로 서 있을 때와 거꾸로 서 있을 때의 두 경우로 구분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서양식 사고로서는 아직 이러한 것을 음양사상(陰陽思想)으로 이끌어갈 발상은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해야함이 옳다.

다음 그림2에서와 같이 수평,수직의 두 선의 성질을 바로 선 정삼각형과 거꾸로 선 역삼각형의 도형에 대입해보자.

註2) J.E.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Barnes and Nobl Books, New York, 1993, P.122.

註1) 圓佛敎正化社, 圓佛敎全書, 圓佛敎出版社, 1980, P.24.

< 그림 2 >



수평선은 “수동적(Passive)이며 정적(Static)인 성질을 가지는데 비해 수직선은 “능동적(Active)이며 다이내믹(Dynamic)한 성질을 지니고있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註3) 이 가운데 수평선의 성질을 바로 선 정삼각형의 형태에 옮기면 바로 선 정삼각형은 수동적(受動的)이며 정적(靜的)이어서 음양의 성질 중 음(陰)의 성질에 해당되며, 거꾸로 선 역삼각형은 능동적(能動的)이며 다이내믹(Dynamic)하기 때문에 음양의 성질 중 양(陽)에 해당된다. 이러한 바로 선 삼각형과 거꾸로 선 역삼각형의 속성을 사물의 특징과 결부시켜 연구해보고자 한다.

## 2. 삼각형의 음양(陰陽) 적용

### 가. 시각문화에서의 음양적용

아래 그림3은 바로 선 정삼각형과 거꾸로 선 역삼각형을 사물의 시각형태에 적용하여 음양에 관한 발견들을 요약한 것이다. 제시된 사례들은 우선은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자의 자의적 견해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자세히 관찰하고 음미해보면 그 이상의 가치있는 시각적 음·양논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림 3 >

	음(陰)	양(陽)
1		
2		

註3) Ibid.

	음(陰)	양(陽)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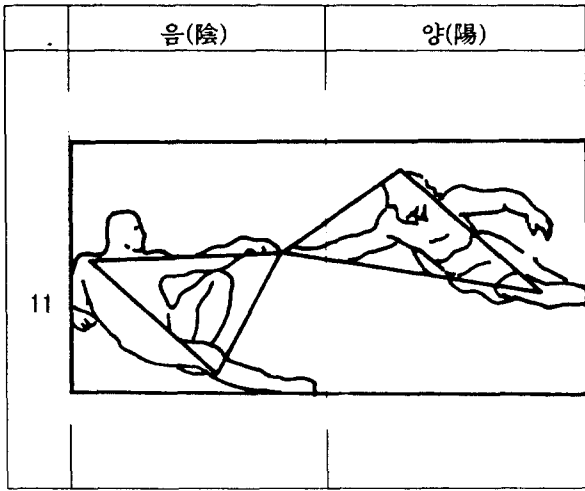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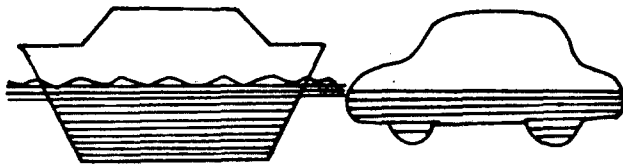


그림 3-1,2,3,4,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양(陽)의 그림일 경우 윗 부분이 아랫 부분보다 그림의 모양이 넓고 크고, 음(陰)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그림의 아랫 부분이 윗 부분보다 넓고 크다는 것이다. 음(陰)의 경우 이것은 다른 말로 아랫 부분에 무게의 중심이 있다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그림3-8,9를 보면 더욱 잘 이해된다.



위 그림 3-8,9는 각각 배와 자동차의 그림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의 중간에서 아래부분까지의 빗금친 부분에 사실상 물체의 무게 중심이 모여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어휘가운데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는 격변화 방식에 따른 분류법으로 각각 고유한 성(姓: Gender)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 명사인 "자동차(Car)"와 "배(Ship)"가 여성으로 규정되고있음은 이것들의 무게 중심이 각각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는 바람과 큰 파도가 밀어닥쳐도 아랫 부분이 크고 무거워야 안전할 수 있다. 자동차도 그림에서와 같이 아랫 부분에 엔진과 각종 기어장치들의 무게가 모여있어야 달려도 전복되지않고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아랫 부분이 무겁거나 형상이 크서 안전해야만 여성<陰>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과 우리가 이미 잘 알고있는 등식. 즉 "여성=음(陰)", "남성=양(陽)"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3-1,2,3,4,5,6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여보자. 우선 그림3-5부터 살펴보자. 그림3-5는 도자기의 형태로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중간 아랫 부분의 배가 부른 도자기가 여성의 형상이라면 중간 윗 부분의 어깨가 넓은 도자기가 남성의 형상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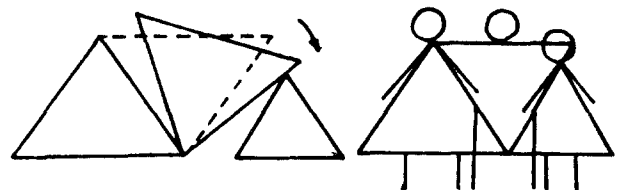


즉 아랫 부분이 무겁고 커서 쳐져있으면 여성이요, 아랫 부분이 가볍고 작고 좁아져 있으면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이미지는 자주 움직이지 아니하고 - 하체(엉덩이)가 무겁고 커서 자주 움직이기 불편하므로 - 한 곳에 머무르며 정착을 하는 편이면, 이와 반대로 남성은 하체가 가볍고 이동하기 쉽게 근육질이 잘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주 움직이며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지=여성", "움직임=남성"이라는 등식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남자는 밥먹고 밖에 나가야 한다"거나 "여자는 밖으로 나돌지 말고 안방 잘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속담은 우리가 무의식 중 "정지=여성", "움직임=남성"의 의미를 강조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림3-6은 꽃과 나비의 그림이다. 꽃<植物>은 땅에서 자라는 자연물로서 땅<地>과 함께 여성<陰>을 취하지만 나비<動物>은 하늘<天>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남성<陽>을 취한다. 사실 꽃<여성>은 가만있어야 하고 벌<남성>이 움직여야 함이 원칙이다. 꽃의 모양은 안전한 정삼각형의 모양을 하고있지만 나비의 모양은 역삼각형이다. 꽃은 한 곳에 머무르며 안정되게 자리잡아야 하지만 나비는 몸을 가볍게 이동을 잘 시키기 위하여 역삼각형의 모양을 아니 할 수 없다.

또 남녀 양성의 완전한 결합에 있어서도 "깨어지지않는" 결합의 경우의 결합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양성간의 틈이 생기지 않는 완전한 결합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결합은 틈과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이다.

위의 이러한 현상을 기초조형으로 옮겨가면 "안전한 정삼각형(여성)"과-아랫부분이 크므로- "불안정한 역삼각형(남성)"-아랫부분이 작으므로-의 형상을 그림3-4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구조학적으로나 현상학적으로나 대체로 이것은 도형이 가진 양성(兩性)의 속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바로 놓인 정삼각형 <여성>은 혼자 두어도 옆으로 쓰러지지 않지만 역삼각형<남성>은 혼자 두면 불안정하므로 좌우의 어느 한쪽으로 쏠어질 수 밖에 없다. 즉 바로 놓인 정삼각형은 혼자서 얼마든지 자기를 안정시켜 컨트롤하지만 역삼각형은 옆에서 받쳐주지 아니하면 안전하게 자기를 컨트롤 할 수 없다. 그래서전래의 속설로 여성은 남성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남성은 여성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 옆은 한쪽만으로는 불안정하여 - 정실 부인만으로는 모자라 - 또 다른 한쪽으로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실을 받쳐두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라면 지나친 넌센스적 해석일까?

아래는 그림3-3의 내용으로 좌측의 것은 폭발 전의 무거운 다이내마이트로 상상해도 좋다. 혹은 공기보다 안에 있는 기체의 질량이 무거워 아래로 쳐져 내려앉은 고무풍선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좋다. 어떤 것이든 공통되는 것은 아래가 무겁거나 안정되어있는 형상이 되어 음<女性>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음이다. 그러나 우측 그림은 그 반대로 주변 공기보다 안에 있는 기체의 질량이 가벼워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고무풍선을 상상케 하는 것으로 가볍게 활동하는 양<男性>의 이미지를 주고있다. 또 생명체가 탄생되기 위해 위로 활발히 이동하는 형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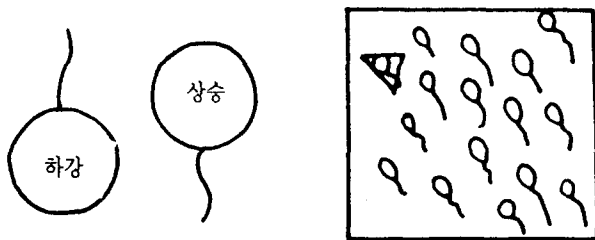


그림3-4는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의 형상으로 화장실의 성별 용도를 구분짓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안전한 정삼각형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형상이며 역삼각형은 어깨가 넓은 남성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세계 공동적 시각언어로서 어느 나라의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다.

그림3-7은 산과 하늘의 형상이다. 산은 바로 선 안전한 삼각형인데 비해 하늘은 상대적으로 역삼각형의 모양을 하게 된다. 산은 곧 땅<地>의 일부로서 여성이며 음(陰)을 의미하지만 하늘<天>은 남성이며 양(陽)을 의미한다. 산이 어떤 모양의 삼각형을 하든 하늘은 산의 모양에 맞추어 역삼각형으로 대응해준다. 산이 높으면 높은 만큼의 커다란 골짜기 하늘을 역삼각형으로 나타내 보이고, 산이 낮으면 낮은 만큼의 아늑한 구름지의 하늘을 역삼각형으로 나타내보인다. 하늘은 이렇게 산의 변화에 자기의 형상까지 모두 양보하여 맡겨버리는 가장 완전무결한 적응체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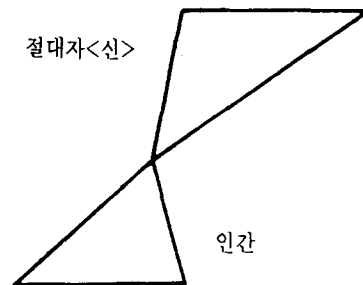
여기서 이집트의 피라미드(Pyramid)를 잠시 생각해 보자. 피라드는 이집트 문명의 묘지 묘사기 보다는 오히려 신에 대한 거대한 복종표시의 거석물이라고 해야함이 옳다. 그것은 북쪽하늘<天-남성>을 향해 위치해있으면서 석관속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영생을 피하도록 한 매우 인간적 고뇌의 산물로서 거대한 삼각형의 산 모양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삼각형의 산은 바로 땅에

뿌리박은 땅<地>의 일부이며 여성이며 음(陰)을 의미한다.

그림3-10은 교회의 첨탑과 십자가와의 관계를 음양사상에서 고찰해본 내용이다. 교회의 높은 첨탑 꼭대기와 양쪽 지붕끝을 연결해보면 바로 선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첨탑위에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를 첨탑과 연결하면 거꾸로 선 역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로서 시각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는 바로 선 삼각형으로서 여성<陰>을 뜻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하여 인간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절대주의 장소-십자가가 위치하는 장소-는 역삼각형으로서 남성<陽>을 뜻한다. 절대주 하느님은 보통 방에서의 기도보다 다락방에서의 기도를 더 중히 여긴다고 하였다. 다락방은 하늘과 가까운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살펴 보면 지붕이 내려 온 모양이 비스듬히 경사진 천장을 하여 이를 바닥의 선과 이으면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있기때문이며, 이 삼각형의 공간은 그대로 여성<陰,인간>이 되어 역삼각형인 십자가의 하느님<陽,신>이 좋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선 삼각형과 거꾸로 선 역삼각형이 통합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교회의 천정은 낮고 평평한 수평의 천정보다는 자붕의 첨탑까지 이어져 올라간 높은 경사진 천정일수록 종교적 신앙심이 더욱 우러나올 것임이 분명하다. 교회 건축가는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림3-11,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를 살펴보자.

< 그림 4 >



이 그림에서 피조되는 인간의 상을 그림에서 인간이 누워있는 바닥을 기준으로 삼각형으로 그려보고, 창조의 순간을 인간과의 접촉으로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신의 모습을 역삼각형으로 그어볼 때,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선 삼각형과 거꾸로 선 역삼각형의 모양을 만나게 된다. 즉 인간은 땅위의 바로 선 삼각형으로서 음(陰)의 존재이지만 신은 하늘에서 거꾸로 선 역삼각형의 모양을 함으로서 양(陽)의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즉 누워있는 인간은 음(陰)으로서 대지위에 부동의 상태에서 존재하지만 신은 양(陽)으로서 하늘을 가볍고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창조해 나간다. 그림3-10의 기도하는 장소인 교회의 지붕이 음(陰)이면, 그림3-11에서 처럼 나중에 기도하게 될 피조되는 인간도 음(陰)일 수 밖에 없다. 또 그림3-10의 첨탑 십자가가 양(陽)이면 그것의 주인이시며 인간을 창조하는 신 또한 마땅히 양(陽)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인간, 자연물, 도형의 법칙, 인간이 만든 물건, 그리고 중

교적 정신과 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상호 음양사상(陰陽思想)과 맥을 함께 하고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 그림 5 >

나. 언어문화에서의 음양적용

표1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양으로 분류하는 낱말이다. 서로 상치된 개념의 이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 쓰이는 말로서 우리생활의 깊숙한 부분까지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 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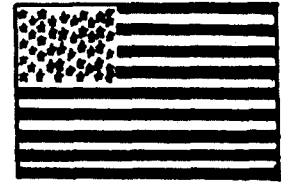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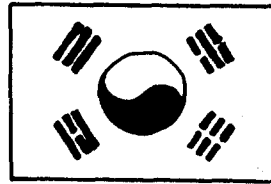
구분	음(陰)	양(陽)
1	홍(紅)	청(靑)
2		
3	북(北)	남(南)
4	주(晝)	야(夜)
5	지(地)	천(天)
6	수(水)	화(火)
7	월(月)	일(日)
8	귀(鬼)	신(神)
9	dark	light
10	동(冬)	하(夏)
11	백(魄)	혼(魂)
12	통일(統一)	분열(分裂)
13	짝수 2,4,6,8	홀수 1,3,5,7

색(色)의 분류에서 표1-1의 홍(紅)은 여성을 나타내고 청(靑)은 남성을 나타낸다. 전통 혼례에서 신랑의 옷이 푸른 색이면 신부의 색은 붉은 색이다. 또 혼례식날 밤을 밝히는 등은 등간의 빨간 불 <女性>을 청색의 천<男性>이 바람에 끄지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이미 이때부터 남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자는 시집은 날로부터 가정을 항상 환한 빛으로 밝히는 등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남자는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시련과 풍파를 맞더라도 여자<등불>를 감싸고 끄지지않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방위(方位)의 분류에서 표1-3의 북(北)은 여성을 나타내고 남(南)은 남성을 나타낸다. 남남북녀(南男北女)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상상해보면 흥미롭다. 또 표1-1의 색(色)과 표1-3의 방위(方位)를 같은 이미지로 연상시키면 북쪽의 붉은 동토<女性>와 남쪽의 푸른 바다<男性>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볼 수 있다.

표1-2는 표1-1의 색과 표1-3의 방위의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태극문양에서 빨간 북방은 여성을, 파란 남방은 남성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그림5에서 처럼 한국의 태극문양을 미국의 성조기와 비교해보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태극문양의 윗쪽 붉은 부분이나 성조기의 붉은 줄(Stripes)은 다같이 땅과 여성과 고요와 잉태의 풍요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 태극문양의 아랫쪽 파란 부분이나 성조기의 파란 별의 배경은 하늘과 남성, 그리고 생산의 왕성한 활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한나라의 국기는 음과 양이 합쳐서 통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것의 통합이 국민을 번식시키고 나라를 번창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동양적 사상에서 유추한 미국 성조기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나 미국 성조기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대부분 붉은 색과 파란 색의 결합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음과 양의 이치를 애초에 의도적으로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들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통합사상, 즉 음양의 통합사상으로 번식과 번영의 갈망이 뿌리깊게 그들의 정신속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표1-4의 밤과 낮의 분류에서 밤<夜>은 여성을 낮<晝>은 남성을 뜻한다. 밤에는 모든 것이 쉬고 정지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고요하여 여성을 뜻하며, 낮은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남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밤은 음(陰)이고 여성이며 낮은 양(陽)이며 남성이 된다.

표1-5의 천(天)과 지(地)의 분류에서 천은 남성을 뜻하며 지는 여성을 뜻한다. 천은 변화가 심하고 힘이 용솨음 친다. 바람의 힘에 의해 구름의 이동이 심하고 천둥 번개가 친다. 다분히 남성적이다. 그러나 지는 천의 움직임에 의하여 항상 피동적일 뿐이다. 그리고 천이 움직이지 않는한 지는 항상 고요하다. 그래서 여성적이다. 또 땅<地>에서는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영어의 'fertile'의 의미가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고, 인간이나 동물이 다산을 하고, 풍작을 가져오며, 수태(受胎)를 잘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양식 사고에서도 땅은 여성일 수 밖에 없다. 동양에서도 천대장군(天下大將軍)이 남성이고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은 여성이다. 즉 남성은 하늘(天)이고 여성은 땅(地)이란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은 하늘이고 여성은 땅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서(聖書)의 이사야(Isaiah) 62장의 일부註4)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I will speak out to encourage Jerusalem;  
I will not silent until she is saved,  
And her victory shines like a torch in the night.

2 Jerusalem, the nations will see you victorious.  
All their kings will see your glory.

註4) Good News Bible. American Bible Society, N.Y. 1976,

You will be called by a new name,  
A name given by the LORD himself.

3 You will be a beautiful crown for the LORD.

4 No longer will you be called "Forsaken,"  
Or your land be called " Deserted Wife."  
Your new name will be " God Is Pleased With Her."  
Your land will be called "Happily Married,"  
Because the LORD is pleased with you  
And will be like a husband to your land.

5 Like a young man taking a virgin as his bride,  
He who formed you will marry you.  
As a groom is delighted with his bride,  
So your God will delight in you.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밤(night), 불(red torch), 땅(land) 이 여성이라면 파란 하늘 ( blue sky)은 남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양사상이나 서양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유일한 양성(兩性)의 합일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절대자인 신(神)일 뿐이다. 성서 시편(Psalm)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그 자신안에 어두움(Dark-밤)과 밝음(Light-낮)을 동시에 모두 가지고 계시면서 때로 그 스스로를 어두움으로 덮기도 하고-18장 11절, 또 어두움을 해쳐 빛을 발하기도 한다.-18장 12절" 註5)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음양의 합일체는 바로 절대 창조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1-1에서 8가지의 내용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음과 양에 해당하는 구절을 각각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즉

양(陽)의 구절로 -----

" 남방의 파란 낮  
하늘을 배경으로  
태양의 불꽃이 이글거린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였다"

음(陰)의 구절로-----

" 북방의 어두운 밤하늘에  
붉은 달이 땅으로부터 떠 오르다  
물에 비친다.  
여자는 안에서  
출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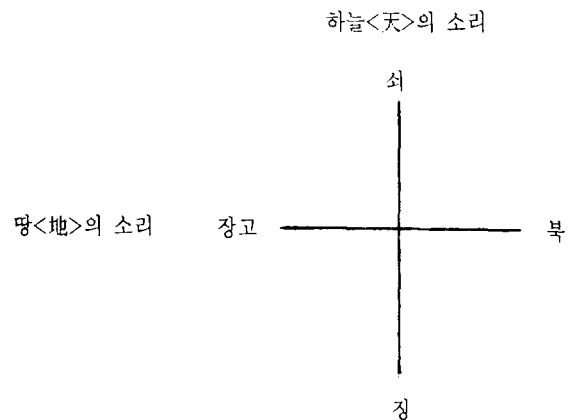
다. 청각, 후각, 기타 영역에서의 음양적용  
음양은 위와 같이 시각문화와 언어문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청각문화와 후각문화, 기타 다른 종류의 문화의 영역

註5) Op.cit., P.628.

註6) 김선현,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귀인사. 서울. 1988. P.23.

에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각문화와 관련해서 한국 전래의 절에서 사용하는 사물(四物)로서 목어(木魚), 법고(法鼓), 운판(雲板), 대종(大鐘) 등이 있고, 민간에는 쇠<쟁가리>, 징, 장고, 북 등의 사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이 내는 소리를 음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어, 법고는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며 운판과 대종은 금속으로 만든다. 장고와 북은 가죽으로 만들며 쇠와 징은 금속으로 만든다. 가죽으로 만든 소리는 땅<地>-陰-의 소리를, 쇠로 만든 악기는 하늘<天>-陽-의 소리를 낸다. 나무와 가죽은 땅<地>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것이어서 소리도 둔하고, 묵직하고, 좀여리고, 땅울림과 같은 음(陰)의 소리를 발하는데 비해 금속으로 만든 것은 소리가 경쾌하고, 가볍고, 빠르게 바람처럼 내는 음이어서 이것은 하늘의 소리<陽의 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쟁가리와 징은 양의 소리를, 북과 장고는 음의 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러한 음과 양의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고, 화합하여 완전한 소리의 공간을 이루게 된다.註6) 그림 6에 나타나는 쇠와 징은 수직선상의 양(陽)의 소리에 해당하고 북과 장고는 수평선상의 음(陰)의 소리에 해당한다. 수평선이 음(陰)이라면 수직선은 양(陽)에 해당함은 서론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 그림 6 >







후각에 있어서도 땅의 냄새를 맡거나 맛을 알기 위하여 흙을 입에 넣으면 무겁고 둔하고 텁텁한 맛 - 사물(四物)의 악기로는 음(陰)에 해당하는 소리이다 - 이 나는데 비해, 하늘의 맛을 알기 위하여 공기를 입에 넣으면 가볍고 빠르게 청량한 맛 - 사물의 악기로는 양(陽)에 해당하는 소리이다 - 이 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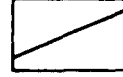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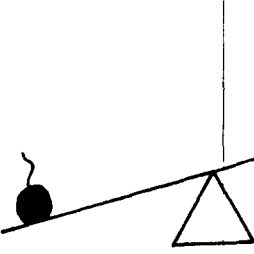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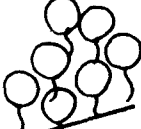
아래 그림 7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비교한 음(陰)과 양(陽)의 해석이다.

< 그림 7 >

구분	음(陰)	양(陽)
1. 상징선	수평선 —————	수직선 



구분	음(陰)	양(陽)
2. 상징 도형	바로선 삼각형 	역삼각형 
3. 미각 후각	텃텃한 맛과 냄새	청량한 맛과 냄새
4. 청각	탁한 소리	경쾌한 소리
5. 색	홍(紅)	청(靑)
6. 방위	남(南) 	북(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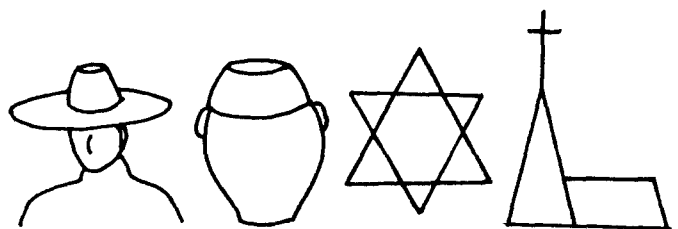
7. 조명	Dark 	Light 
8. 건습	젖은 	마른 
9. 속도	느린 	빠른 
10. 중량	무거운 	가벼운 

### 3. 음양의 일치와 통합

이러한 음양사상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찾

아보면 흥미롭다. 그림 8은 음과 양이 혼합되어 일치를 이루는 예이다.

< 그림 8 >



좌측 상단에 보이는 갓쓴 남자의 형상에서 그의 갓은 여성에 해당하는 도형임을 알 수 있다. 갓은 바로 선 삼각형으로 여성<陰>을 나타내고있는데 비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남성<陽>임을 알 수 있다. 보통 갓은 여성은 쓰지않고 남성만이 쓴다. 즉 음과 양이 조화하기 위하여 음에 해당하는 갓은 여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양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주로 갓을 사용한다. 이것은 음<女性>과 양<男性>의 조화를 볼 수 있는 한 예이다. 그 다음 우측 상단은 한국 전래의 장독대이다. 장독의 두경은 바로 선 삼각형에 해당되어 음<女性>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장독은 역삼각형에 해당되어 양<男性>을 취한다. 음과 양의 조화가 일치하는 보기이다. 그 다음 좌측 하단은 각종 휘장이나 방패의 문양 등에 널리 사용되는 도형이다. 이것은 음과 양의 완전한 혼연일치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단결과 통일을 요구하게 된다. 그 다음 교회의 지붕과 첨탑의 십자가는 이미 예를 들었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창조주<陽>밑에 인간<陰>의 완전한 종속을 의미한다. 여기에 파란색은 양에 해당하므로 십자가의 색을 파랗게 칠하고, 빨간색은 음에 해당하여 교회지붕의 색을 빨갛게 칠한다면 한층 더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래 그림 9는 위 그림 좌측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 다 우리의 눈에 익은 것으로 과거 우리 조상들의 복장과 세시풍속 및 당시의 삶의 모습들이다.

< 그림 9 >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게 발견되는 것은 여성일 경우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치장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머리의 모양을 얼굴보다 위로 크게 하여 역삼각형의 양(陽)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에 해당하는 여자이지만 양과의 조화를 하여서이다. 그리고 상투를 틀었거나 삿갓을 쓴 남자도 성별상 양(陽)에 해당되지만 음(陰)의 형태인 바로선 삼각형의 상투와 삿갓을 취하므로 음양(陰陽)의 조화를 이룬다. 특히 두식(頭飾)에 있어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서를 살리기 위하여 고대로부터 하늘 즉 높은 곳을 숭상하는 종교적 신앙심의 표현이 형상화되었는데" 註7)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모든 것이 천(天), 지(地), 인(人) 사상 즉 사상은 양(陽)을 의미하는 하늘과 음(陰)을 의미하는 땅사이에 존재하며 이것들을 잘 조화해야 한다는 사상이 깃들여있었다. 그래서 양(陽)인 남자는 음(陰)과 잘 조화하기 위하여 음에 해당하는 두식 즉 상투나 삿갓모양을 바로 선 삼각형의 모양으로 취하였었다. 여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그들은 반대로 음(陰)에 해당되는 여자이므로 양(陽)과 잘 조화하기 위하여 양에 해당하는 두식 즉 머리모양을 자기의 머리보다 크게 보이도록 역삼각형의 형상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남자와 여자는 각각 그 자신의 모습에 각각 다른 성의 형상을 취하여 이성(異性)과의 완전한 혼합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자연에 거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호 조화를 이루려는 우리조상들의 자연관에 기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음과 양의 일치와 결합으로 된 도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의 발견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음양사상의 내용을 우리의 문화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양적 사고의 음양사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것을 더욱 우리의 것답게 전승시키는데 발전적 계기가 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욱 차원 높게 일구어내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음양사상을 디자인이나 조형예술활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예술의 다른 장르, 이를테면 시(詩)나 음악(音樂) 같은 데에서도 운(韻)과 소리(音)로서 음양(陰陽)의 내용을 도입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작품을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실내 장식에 있어서 이러한 음양사상의 이론적 적용을 실제 내부설계에 도입하였을 경우 보다 실내를 자연스럽게 치장해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매일 어떻게 장식할까에 대한 일상적 고민도 해결해줄 것으로 여겨진다.

#### 4. 결론

위의 사실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가. 모든 형태에는 음(陰)과 양(陽)이 존재한다.

나.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형태에도 음(陰)과 양(陽)은 적용된다.

註7)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서울. 1986. P.620.

다. 형태의 음양사상(陰陽思想)에 대한 기초를 서양인들은 삼각형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었으나 정작 그것을 자기들의 사상으로는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형이하격이며 실험 정신적인 사고의 틀에서는 음양사상은 발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그래서 형태의 음양사상(陰陽思想)은 앞으로도 동양에서 더 적용의 폭과 활용을 높게 발전시킬 수 있다.

라. 음양사상(陰陽思想)은 형태의 시각문화(視覺文化)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언어문화(言語文化) 영역에도 적용되므로 이들 두 문화의 형태를 합하면 한층 더 높은 사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마. 형태의 음양사상(陰陽思想)을 스스로 필요에 따라 적용시키기도 하고 적용 아니 시키기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존재는 오직 절대 창조주일 뿐이며, 우리는 이러한 이치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

바. 디자인이나 조형예술활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이상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 이미 깊숙히 내재해있는 음양사상(陰陽思想)은 더욱 연구하여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 이러한 음양사상을 조형예술활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예술의 다른 장르에까지 확대시켰을 때 우리의 문화는 더욱 성숙해지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

아. 가장 전통적인 것을 가장 세계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통 사상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디자인과 조형예술의 세계화(世界化)에 기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끝.

#### 참고문헌

- 강병희, 복식에 표현된 청색 이미지 고찰, 한국디자인학회(No.18), 1996.
- 高福男,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1986.
- 김현선, 사물(四物)놀이란 무엇인가?, 귀인사, 1988.
- 朴容淑, 神話體系로 본 韓國美術論, 一志社, 1990.
- 朴熙永 譯, 世界의 文樣, 景仁文化社, 1992.
- 圓佛敎正化社, 圓佛敎全書, 圓佛敎出版社, 1980.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96.
- Cirlot, J.E., A Dictionary of Symbols, Barnes and Noble Books, New York, 1993.
- Good News Bible, American Bible Society, New York, 1976.
- Kohler, Wolfgang, Gestalt Psychology, Liveright, N.Y., 1970.
- Kubler, George, The Shape of Time, London, 1962.
- Whyte, L. L., Aspect of Form, Indiana University Press, London, 1971.